

## 뉴스레터(KPSA2021-4호)

###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내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·발표하였다.
- 안전성조사 계획은 ‘20년 안전성조사 결과,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시험·인증기관,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.
- `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,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,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13회 실시할 계획이며,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.
- `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

---

#### < '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성과 >

- **(부적합률 개선)** 안전성조사 횟수(10→12회), 중점관리품목(30→50개) 확대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 결과, **50개 중점관리품목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'19년 대비 개선(10.5→6.8%)**
-

(단위 : %)

<중점관리품목 부적합률>			<주요 부적합률 개선품목>				
구분	연도		품목	연도			
		'19	'20		'18	'19	'20
	'20 신규지정 (20개)	20.5	13.4	학 용 품	8.8	7.6	3.9
	유지 (30개)	9.5	6.6	휴대용 레이저	22.2	7.8	3.2
	전체	10.5	6.8	전 기 매 트	28.6	23.3	13.6

- **(리콜회수율 제고)** 제품안전관리원내 리콜 전담책임제 도입운영, 연중 리콜 이행점검 (정기 3~5회, 수시점검 병행)등을 통해 **리콜제품의 유통시장 회수율을 크게 개선(45.5→54.2%)**  
 - 특히, 학부모 이용률이 높은 알림장갑, 맘카페 등에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**소비자가 사용중인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대폭 확대됨(5.5→20%)**

<리콜 회수율>				<회수실적 중 소비자 판매분 비율>				
구분	연도			구분	연도			
		'18	'19	'20		'18	'19	'20
	전기용품	46.5	52.9	55.7	전체 회수량 중 소비자 판매분	5.1	5.5	20.0
	생활용품	37.6	35.2	51.7				
	어린이제품	33.0	45.4	54.5				
	전체	40.6	45.5	54.2				

- **(불법·리콜 제품 차단)**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 **4,216개를 적발, 행정조치** 하고, 소시모 등 6개 소비자단체(감시단 180명)와 공동·연계하여 **온라인몰상의 리콜제품 재유통을 3,164건 원천 차단** 조치하는 한편,  
 -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다이소를 비롯, 온라인 유통사(쿠팡, 네이버 등) 등으로 **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을 7,167개 추가·확대**(총 18만개 매장)
- **(사업자 계도·홍보)** KC마크 등 제품 표시사항 개선을 위한 **제품별 표시지침서** (2천부), 사업자의 리콜이행 지원을 위한 **리콜이행 매뉴얼**(4천부), **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 법적 안전기준 안내책자**(2만부) 등을 제작·배포하여 **사업자 맞춤형 교육 강화**

## '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

### 조사 대상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

- 금년도에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(총278개) 구분을 현행 2단계(중점/일반 관리)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·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.

<2020년>		<2021년>	
품목 구분	성격	품목 구분	성격
중점 관리	부적합률 상위 등 위해 우려 품목	① 중점관리	2020년과 동일
일반	계절용품 등 중점관리 이외 품목	② 언택트	온라인·언택트 관련 수요 급증제품
		③ 사각지대	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
		④ 일반관리	①, ②, ③ 제외 기타 품목

- ① (중점관리품목, 50개 지정·관리)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,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.

\* '20년도 관리대상품목(50개)중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, 전지 등 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, 물놀이기구, 비비탄총 등 7개를 신규로 지정(총 50개)

< '21년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 >

구분	어린이용품(17개)	생활용품(13개)	전기용품(20개)
관리 대상 (50)	유지 품목 (43)	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학용품, 유모차, 어린이용 자전거 등 16품목	전동킥보드, 전기자전거, 서랍장, 실내용 바닥재, 등 10품목
	신규 지정 (7)	어린이용 물놀이기구	물놀이기구, 비비탄총, 고정식자전거
제외 (7)	지정 해제 (7)	어린이용 물안경, 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	휴대용 예초기의 날, 헬스기구
			전기냉장·냉동기기, 전지

- ② (언택트 품목, 20개 지정)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, 헬스기구,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동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.

< '21년 언택트 품목 >

구분	어린이제품(6개)	생활용품(6개)	전기용품(8개)
대상 품목	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어린이용 자전거, 어린이용 키보드, 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	실내용 바닥재, 이륜자전거, 전기자전거, 헬스기구, 가정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품	직류전원장치, 발욕조, 전지, 전기마사지기, 후드믹서, 전기식조리기, 주방용전동기기, 음식물처리기

③ (사각지대 품목, 32개 추가)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,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(23개)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,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.

< '21년 사각지대 31개 품목 >

구분	최근 3년간 조사 미실시 제품 (21개)	안전기준 준수 위해우려 제품 (5개)	한국소비자원 요청 제품 (6개)
대상 품목	(안전인증) 전자레인지, 전자개폐기 등 4품목 (안전확인) 이미용기기, 전기보온기 등 7품목 (공급자) 충전용전동공구, 주류숙성기 등 10품목	(부적합률 미개선 품목) 텐트, 고령자용 지팡이, 고령자용 목욕의자, 반사안전조끼 (유통량 상위품목) 가정용 섬유제품	(안전관리 강화) 미끄럼방지타일, 합성수지제품, 모니터, 침대매트리스 등 4품목 * 신유형 문구 등 조사 요청 품목(2개)는 수시조사에 반영

**조사 방식**      **조사 규모 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 관리 강화**

□ 연중 안전성조사를 확대(5,286개→5,500개)하고,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·관리해 나간다.

① (정기조사 확대, 5→6회)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(년3회, 신학기/여름용품/겨울용품)과 중점관리품목(년2회 이상 집중조사) 정기조사에, 언택트 품목(1회) 조사를 추가하여, 년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·실시한다.

< '21년 정기 안전성조사 운영계획 >

기존('20)			개편('21)		
1차	신학기	2월말	1차	신학기	2월 말
2차	중점관리 1차	5월초	2차	언택트 관련 품목	4월 초
3차	여름용품	7월 중순	3차	중점관리 1차	5월 말
4차	중점관리 2차	10월 초	4차	여름용품	7월 중순
5차	겨울용품	12월 초	5차	중점관리 2차	10월 초
			6차	겨울용품	12월 초

- ② (연중 수시조사)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,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, 키즈카페,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.
- 아울러,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.
  -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([www.safetykorea.kr](http://www.safetykorea.kr)), 행복드림([www.consumer.go.kr](http://www.consumer.go.kr)) 등에 제공하여 잠재적 소비자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.
- ③ (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)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~80%(기존 50~60%) 수준까지 확대하고,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·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.

## **리콜 이행**      **이행 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**

-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,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·차단을 강화한다.
- ① (리콜 책임제 운영)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(리콜처분 즉시) 단계부터 연중 상시점검,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(한국제품안전관리원)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.
- ② (사업자의 책임강화)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,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\*를 적극 시행한다.
- \*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(벌칙)제2항제3호에 근거,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('19.12.10 개정)
- ③ (온라인 유통 감시) 네이버, 쿠팡,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\*을 추진하는 한편,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·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.
- \*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개업자를 추가(법 제3조 개정)

- ④ (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)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(교육부, 복지부, 소비자원 등) 홈페이지, SNS, 알림장애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.

## 유통시장 감시

## 불법·불량제품 차단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

- 불법·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.
- ① (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)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\*(현재 18만개 매장 도입)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.
-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,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·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.
  - \* 시스템 도입매장 수: (‘19) 173,723개 → (‘20) 180,891개 → (‘21 목표) 190,000개
  - 더불어,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·추진한다.
  - \*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(법 제15조의 2 신설)
- ② (시장 모니터링 강화)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,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·연계하여 전국 온-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(감시원 약 200명) 활동을 강화하여,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,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·판매되는 불법·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※ 안전성조사 계획 및 대상 품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